DBpi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7 No.1 Serial No.153 2019.3. 55~70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9.37.1.55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지지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Perceived Parental Support and SNS Overindulgence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Validation from Others

김진아(Jinah Kim)[1], 장석진(Seokjin Chang)[2], 최연실(Younshil Choi)[3*]

[1]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2]Department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3]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support from their fathers and mothers in relation to the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validation from others.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four-year colleges currently using social media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online survey from May 20-26, 2017; a total of 384 respondents were selected for analysis. SPSS Statistics 23.0 and AMOS 22.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for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perceived support from their fathers negatively corresponded with needing validation from others and the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Although support from mothers negatively corresponded with the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its relationship with needing validation from oth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indulgence in social media negatively corresponded with support from fathers and support from mother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eding validation from others. Second, when the mediating effects of receiving validation from others was explo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ived support from their fathers and the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receiving validation from others was found to be a full mediator between support from fathers and the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Moreover, although support from mothers directly influenced the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it did not exert its influence in terms of needing validation from others, and thu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found that a supportive attitude from fathers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decreases the need for validation from others, which, in turn, exerts significant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tendency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educational data for prevention and consultation for college students who report issues related to tendencies to overindulge in social media and need for validation from others.

▲주제어(Key Words): 부의 지지(father support), 모의 지지(mother support), 타인인정추구(validation from others), SNS 과몰입 경향성(SNS overindulgence pronenes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2018년 춘계통합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Younsh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oongil, Chongrogu, Seoul 110-743, Korea, Tel: +82-2-2287-5317, E-mail: yschoi@smu.ac.kr

www.dbpia.co.kr

Ⅰ. 서론

한 개인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가족 · 학교 · 사회 환경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다양한 환경요인 중 특히 가족은 인격형성의 근원이 되는 집단으로 개인과 사회 중간에 위치하여 매개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지닌다(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이연미, 이선정, 신효식, 2009; 임수빈, 2016). 이와 같이 가족은 한 인간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차적 환경이 되며, 개인에게 안식과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필수적인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김양희, 김진희, 박정윤, 2001; 양옥경, 김연수, 2003; 정현태 2017).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성보다는 정서적인 친밀성을 중시하는 문화이기에 가족관련 변인은 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김상문, 2018; 이종범, 정철영, 2005). 특별히, 가족관련 변인 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특히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으며, 좌절 속에서 극복하는 힘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지지적 태도를 통해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기에 정서적 안정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김상문, 2018; 김정애, 1994; 유영진, 2011).

한편,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사회화, 신뢰감,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심리내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림, 최해림, 2002).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 성숙,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진로발달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박현미, 2011), 가족의 지지는 자기 효능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미영, 이온유, 김은희, 2016).

자녀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지지는 아버지의 지지와 어머니의 지지의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고미정, 2018; 문지현, 신나나, 2017; 하수경, 2014). 어머니가 자녀의 관점에 대해 공감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독려하며 칭찬해주는 지지적 태도로 양육을 할 때 자녀는 충동적인 행동을 지연시키고 계획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 지지는 자기조절과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지는 자기조절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지지와 존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경우, 자녀는 건강한 자기상을 구축할 수 있고,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신희수, 안명희, 2013; Greenberg & Mitchell, 1983). 하지만, 양육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반응해주지 못한 경우, 자녀는 타인의 반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Bowlby, 1980).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와 긍정적 상호작용 속에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자녀는 자신에 대한 긍지와 정서적 안정감, 자아존중감등이 형성되어 있어 건강한 자기상을 가지게 되어 외부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아래에서 성장하지 못한 경우, 타인의 인정과 지지에 집중하며 주관이 흔들리는 타인인정추구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연희, 2013; 서은혜, 2016; Bowlby, 1980). 타인인정추구란 부모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해 발생된 결핍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변경란, 2015).

사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될 수 있다. 타인인정추구는 Ellis(1994)의 비합리적 신념의 4가지 차원 중 요구성이 있는 당위적 신념으로서 역기능적 정서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장하연, 조용래, 2012; Bernard, 1998; David, Schnur, & Belloiu, 2002). 선행연구 결과, 타인인정추구는 눈치와 사회적 효능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유미숙, 2015), 타인인정추구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rns, A. B., Brown, J. S., Ashby Plant, E., Sachs-Ericsson, N., & Joiner, T. E., 2006). 또한, 이외에도 타인인정추구는 사회적 수행불안과 우울 및 불안, 삶의 만족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나래, 이기학, 2015; 장하연, 조용래, 2012).

이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타인인정추구의 모습은 SNS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하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타인인정추구는 SNS 과몰입 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김선미, 서경현, 2015; 송기선, 2014; 정수인, 2014; 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의 공통된 사용목적으로 인맥유지 및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SNS가 기본적으로 공유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www.dbpia.co.kr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자주 접촉하지 못했던 지인들과 SNS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SNS를 자주 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선미, 서경현, 2015; 안수빈, 이강아, 2014).

한편,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 할 때 타인인정추구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는 횟수가 높고, 수시로 SNS 상태를 확인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 또한 SNS는 자신의 게시물에 다른 이용자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들이 결핍된 욕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장이 될 수 있다(김보경, 박용매, 허창구, 2016). 최근 SNS의 사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페이스북 중독장애(facebook addiction disorder)', '디지털 피로감(digital fatigue)'과 같은 용어도 등장하며(MBN, 2017.10.05.), SNS의 과몰입적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인해 SNS의 과몰입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SNS 과몰입 경향성의 원인으로 자존감,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용 동기 등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현, 김세루, 오은진, 2015; 김보경, 박용매, 허창구, 2016; 오경임, 2016).

SNS 이용자는 2018년 기준 20대 이용자가 83.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2016년도 75.6%였던 것과 비교할 때 사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NS 이용자의 최대 직업군은 학생으로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21.9%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윤화, 2016, 2018; 한국미디어패널, 2015). SNS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인 20대와 가장 사용률이 높은 직업군인 학생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대상은 20대 대학생으로 볼 수 있다. 20대 대학생 시기의 시대적 상황은 청소년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타인과 경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데, 이때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이 가능한 미디어 사용의 중독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운, 곽태은, 2016).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대학생들은 경쟁적 사회에서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기 가치를 찾으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가장 좋은 장은 SNS가 될 수 있다(Sheldon, 2008 ; Toma CL, Hancock JT, 2013).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보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 아래에서 성장한 대학생은 부모의 지지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지지받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 아래에서 성장한 대학생은 타인인정추구가 높아져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SNS를 자주 사용하며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족, 부모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가족적응성, 가족지지,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가족건강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고는 있으나(권여은, 이지민, 2017; 김지현, 2015; 김진아, 장석진, 2018; 홍구표, 2016)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지지가 각각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인정추구가 매개하는지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한 탐색적 자료를 도출하는 것이며, 부의 지지, 모의 지지와 같은 가족변인이 다른 중독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인정추구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한 예방과 상담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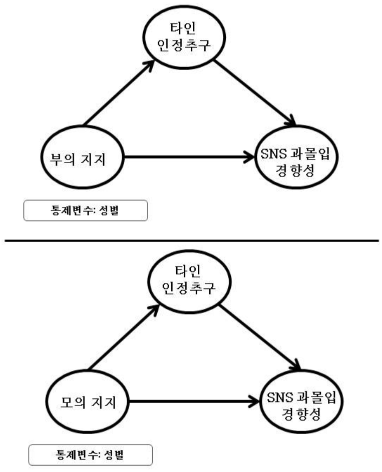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www.dbpia.co.kr

Ⅱ. 선행연구 고찰

1. 부(父)의 지지와 모(母)의 지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중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관계의 시작이 되기에 부모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했는지에 따라 자녀의 심리 · 정서적인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양육태도 중 부모의 지지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해주는 정도를 의미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장동주, 2010). 또한,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는 부모나, 가족, 사회를 통한 유대감, 가치의 확신을 주고 자신을 돌보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기에 큰 의미에서의 사회적 지지라고도 보았다(이향희, 2017). 부모 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정서적 지지는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지로서 존경, 사랑, 이해, 격려 및 신뢰, 관심 그리고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평가적 지지는 인정, 칭찬, 공정한 평가 및 인격 존중과 가치 고양, 의사 존중과 관련 있다. 셋째,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및 위기상황에서 조언과 충고, 지도, 사회와 직업에 대한 지식제공이며,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주고, 돈과 물건, 서비스와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박지원, 1985).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 지지가 낮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력과 비행수준이 낮고, 자아개념과 긍정적 자기상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엄명용, 2001; 이광자, 2004; 이주연, 2001; 장동주 2010).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장동주, 2010). 부모 지지는 학교적응력, 비행수준, 자아개념, 긍정적 자기상, 스트레스 대처방식, 진로역량, 진로성숙 등 다양한 부분과 관계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부모의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희, 박영준, 장재원, 2017; 김상문, 2018; 김수리, 2005; 장동주, 2010; 하수경, 2014).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의 지지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며, 자기 확신과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와 SNS 과몰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2. SNS 과몰입 경향성

SNS(Social Network Services)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친구, 동료 등의 기존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며,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도록 돕는 인적 네트워크형성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 이에 해당한다(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5).

SNS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용자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가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차이점이 될 수 있다(김지혜, 2014; 정유진, 배국진, 2007). 또한 공통적으로 말하는 SNS 사용 목적 역시 관계 유지 및 새로운 관계 확장에 대한 부분이다(김민정, 2011; 송혜진, 2011; 유훈식, 2010; 정유진, 배국진, 2007; 차민지, 2016).

SNS의 사용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 2015년 43.1%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3.2% 증가하였으며,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다른 미디어 서비스와 비교할 때 SNS 이용률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윤화, 2016). 2018년 한국 미디어패널 조사결과에 의하면, SNS 이용율은 2017년에 46.8%였던 것과 대비하여 48.2%로 20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미디어패널, 2018). 성별에 따른 SNS 이용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여성 사용자가 많았으나 2014년에 비해 성별에 따른 이용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윤화, 2018). SNS 이용자 중 여성이용자가 남성이용자에 비해 많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진이, 2013).

SNS 과몰입 경향성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상생활 장애는 SNS를 확인하는 강박적 습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 몰입 및 내성은 SNS를 통해 긍적적 정서 및 만족감을 얻고자 이용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정정서 회피는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고자 SNS로 도피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은 SNS 접속을 중단 혹은 감소시킬 때 초조함과 불안, 강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SNS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로 호응하거나 공유하는 형식으로 반응하는 방식과 새로운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중 SNS에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www.dbpia.co.kr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위로 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SNS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Catalina & Toma, 2013; Panek, Yioryos & Nardis, 2013). 선행연구에서도 고립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SNS 과몰입 경향성의 원인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이상호(2013)는 SNS 과몰입 경향성을 사이버중독의 일환으로 판단하여,'관계 집착형 SNS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중독과 구분되는 SNS 과몰입 경향성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게시물 업데이트에 대한 강박과 타인의 반응에 대한 의존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업데이트한 게시물에 다른 사용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은 SNS 과몰입을 강화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김보경 등, 2016). 오윤경(2011)은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으며,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SNS 과몰입 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인정욕구, 불안애착, 외로움, 결혼불만족 등과 같이 다양한 심리내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송기선, 2014; 이영미, 2016). 구체적으로는 자기상에 만족하지 못하여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SNS에 과몰입적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유나, 2016).

이상의 문헌을 통해 볼 때, SNS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타인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관계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과몰입 경향성에 빠지기가 쉬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과몰입 경향성을 관계몰입의 현상으로 해석하여 대학생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집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타인인정추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과도하게 얽매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인인정추구는 자기강화 능력인 자기인정추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타인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피드백만을 받기를 원해 타인의 기분을 살피며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 맞추어 바꾸면서까지 타인의 거절과 부정적 피드백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나래, 이기학, 2015; 변경란, 2015; Martin, 1984). 타인인정추구를 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극도의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타인의 인정을 경험하면 심리적 고통이 사라지게 되기에 타인의 인정을 마약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병리적 인정추구라고 하였다(이인수, 이무석, 2017; 장애경, 이지연, 2011).

선행연구들에서는 타인인정추구에 대해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Ellis(1994)는 타인인정추구를 역기능적 신념의 세 가지 차원 중 타인의 인정에 대하여 당위적 신념을 지적하였다(예: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타인인정추구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에 속한다고 보았는데(강선희, 정남운, 2002; 김선미, 서경현, 2015), Kohut은 유아기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울음을 통한 요구사항을 부모가 모두 들어주었을 때 자신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게 되어, 이후 자기애를 교정하지 못했을 때 타인에게 인정과 칭찬을 더 강하게 원한다고 하였다(이선화, 2015; Kohut, 1971).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거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타인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기 원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김선미, 서경현, 2015).

또한, 불안정 애착이 타인인정추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관계형성이 실패하여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 유기불안이 반복되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감추고 주 양육자가 원하는 대로 맞추게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성인기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공격적인 감정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비난과 거절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인수, 이무석, 2017). 마지막으로, 낮은 자존감이 타인인정추구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자기상을 형성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부정적 평가와 비난이 있을 경우 자기애의 상처로 인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타인의 인정과 신뢰를 통해 결핍을 채우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김연희, 2013). 특별히 대학생 시기의 타인인정추구는 타인의 인정에 집중하기에 자신의 내적 욕구에는 집중하지 못하여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변경란, 2015), 우울수준, 사회불안, 평가염려와 완벽주의와도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김나래, 이기학, 2015; 변경란, 2015; 장하연, 조용래,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타인인정추구는 인간의 기본욕구이나,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타인인정추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타인인정추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애, 애착, 자아존중감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직접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인정추구의 구체적인 원인과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www.dbpia.co.kr

4. 변수들 간의 관계

1) 부의 지지, 모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

현재까지 SNS 과몰입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적 요인과, 심리내적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가족의 영향력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가족의 영향력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 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SNS 과몰입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이루었으며,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 역시 높았다(공정현, 김세루, 오은진, 2015; 김지현, 2015; 오현희, 김현진, 2014). 또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완전 매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김남희, 2016). 또한 대학생의 SNS 과몰입 경향성과 대인관계와의 문제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홍구표, 2016), 가족기능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차민지(2016)의 연구가 있었으며, 가족건강성은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쳤다(김진아, 장석진, 2018).

SNS 과몰입 경향성과 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부모 애착과 SNS 과몰입과 관련된 연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만이 이루어 졌다(고보숙, 박정환, 2018; 공정현, 김세루, 오은진, 2015; 권여은, 이지민, 2017; 김기모, 김현철, 2013; 안수빈, 이강이, 201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족은 물질중독을 비롯하여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부의 지지, 모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이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가족변인의 영향력은 SNS 과몰입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매개변수를 통해 SNS 과몰입에 원인이 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의 지지, 모의 지지에 따라 SNS 과몰입 경향성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NS 과몰입 경향성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요소를 탐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부의 지지, 모의 지지와 타인인정추구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심리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적응력을 발달시켜나가기에 가족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송진숙, 이영관, 2007). 가족 구성원 중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는 생애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자기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Greenberg & Mitchell, 1983). 이외에도, 모의 심리적 통제는 타인인정추구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심리ㆍ정서적 영역에 대한 개입 및 통제는 자녀의 긍정적 자기인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었다(김상희, 2015; 정윤주, 2004). 결국 양육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주었는지에 따라 자녀의 자기상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때 자녀와 양육자 사이에서 형성된 타인에 대한 반응과 기대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Bowlby, 1980). 그로인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 사람은 자기 인정과 확신이 부족하기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변경란, 2015).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의 지지, 모의 지지가 타인인정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타인인정추구와 SNS 과몰입 경향성

타인인정추구는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선행연구 결과 타인인정추구가 높을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역시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SNS가 다른 사용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글을 통해 게시글을 업데이트하고, 이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기에 타인들에게 자기애가 높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공간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송기선, 2014; 원소희, 서경현, 2016).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포함되어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원하고(Buffardi & Campbell, 2008), 현실에서 불만족하는 자기상을 온라인상에서 보상받고자 하며 실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상적 자기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에서 실제보다 자신을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다(이계정, 정남운, 2007).

또한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게시물을 자주 업데이트 하며, 수시로 SNS를 확인하여 새로운 게시글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

조다현(2014)의 연구에서는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이 SNS에서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원하는 정서를 얻지

www.dbpia.co.kr

못했을 때 강한 수치심을 경험하고 이런 현상을 회피하며, 분노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긍정적 피드백만을 원하며 부정적 피드백은 회피하고자하는 타인인정추구의 특성이 SNS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타인인정추구가 높으면 SNS 과몰입 경향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인정추구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SNS 과몰입 경향성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마련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현재 SNS를 사용 중인 전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및 자료의 유사성을 갖추고 있는 패널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400부의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84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여성 203명(52.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 본 연령차이는 남성 평균 23세, 여성 평균 21.5세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이 233명(6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51(39.9%)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중인 대상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4년제 대학생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이나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SNS 사용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SNS 사용과 관련 특성은 SNS의 주 접속기기 스마트폰이 가장 많았고,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 사용경험에 대한 다중응답을 분석 결과 페이스북 사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순이었다. 또한 SNS의 평균 로그인 횟수는 매일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3회 이상, 거의 접속하지 않음 순이었다.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30분미만, 30분 이상~1시간 이하, 2시간~3시간 이하, 그리고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30~1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남성 (n=181)	여성 (n=203)	전체 (n=384)
연령	평균	23.0세	21.5세	22.2세
	만 19세 이하	14(7.7)	27(13.3)	41(10.7)
	20-22세	57(31.5)	127(62.6)	184(47.9)
	23-25세	90(49.7)	42(20.7)	132(34.4)
	26-28세	18(9.9)	5(2.5)	23(6)
	29세 이상	2(1.1)	2(1)	4(1)
거주 지역	서울 및 수도권	101(55.8)	132(65)	233(60.7)
	기타지역	80(44.2)	71(35)	151(39.9)
학년	1학년	29(16.0)	34(16.7)	63(16.4)
	2학년	54(29.8)	49(24.1)	103(26.8)
	3학년	50(27.6)	57(28.1)	107(27.9)
	4학년	48(26.5)	63(31)	111(28.9)
전공	인문	32(17.7)	30(14.8)	62(16.1)
	사회	34(18.8)	56(27.6)	90(23.4)
	공학	77(42.5)	37(18.2)	114(29.7)
	자연	16(8.8)	23(11.3)	39(10.2)
	의약	10(5.5)	21(10.3)	31(8.1)
	교육/사범	6(3.3)	8(3.9)	14(3.6)
	예술	6(3.3)	28(13.8)	34(8.9)
N(%)		181(100)	203(100)	384(100)

www.dbpia.co.kr

표 2. 조사대상자의 SNS 이용관련 특성

구분	내용	빈도(%)
SNS 사용 주 접속 기기	컴퓨터	16(4.2)
	스마트폰	366(95.3)
	태블릿 PC	2(0.5)
사용 경험이 있는 SNS	인스타그램	270(27.3)
	페이스북	362(36.6)
	카카오스토리	196(19.8)
	트위터	162(16.4)
평균 SNS 로그인 횟수	매일	278(72.4)
	주 5회 이상	35(9.1)
	주 3-4회	39(10.2)
	주 1-2회	21(5.5)
	월 3회 이상	4(1.0)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거의 접속하지 않음	7(1.8)
	30분 미만	86(22.4)
	30분 이상 -1시간 이하	103(26.8)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92(24)
	2시간 이상 - 3시간 이하	58(15.1)
	3시간 이상	45(11.7)
SNS 사용 주 접속 기기	컴퓨터	16(4.2)
	스마트폰	366(95.3)
	태블릿 PC	2(0.5)
사용 경험이 있는 SNS	인스타그램	270(27.3)
	페이스북	362(36.6)
	카카오스토리	196(19.8)
	트위터	162(16.4)
N(%)		384(100)

2. 측정도구

1) 부와 모의 지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를 측정하고자 Barrera(1981)의 사회적지지척도(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 ISSB)를 기초로 박지원(1985)이 만들고 윤혜정(1993)이 수정 ·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질적 지지 5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등 네 개의 하위변인을 포함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느낀 부와 모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으며, 각문항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부의 지지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971이었으며, 모의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1이었다.

2) SNS 과몰입 경향성

대학생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정소영, 김정남(2014)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0이었다.

3) 타인인정추구

대학생들의 타인인정추구를 측정하고자 MLAM을 1984년 Martin이 개정한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이하 RMLAM)을 이정숙(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이며, 응답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779이었다.

3. 분석 방법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지지가 각각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SPSS Statistics 23.0 AMOS 22.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SNS 사용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넷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지지가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해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χ^2 및 df, CFI, NFI, TLI, RMSEA, SRMR을 고려해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 적합도지수인 RMSEA는 .05 이상일 때 우수한 적합도로 보며, 0.8 미만은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SRMR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지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박용매, 문수백, 2009; Kline, 2005). 그리고 상대부합도지수인 TLI와 CFI, NFI는 .90이상일 때 적합도지수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www.dbpia.co.kr

Ⅳ. 연구 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변수는 독립변수 부 지지와 모 지지이며, 매개변수는 타인인정추구, 종속변수는 SNS 과몰입 경향성이다. 각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평균은 부의 지지 2.93, 모의 지지 3.21, 타인인정추구 3.09, SNS 과몰입 경향성 1.96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와 부적상관이었으며(r=-.125, p<.05), SNS 과몰입 경향성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r=-.131, p<.05). 모의 지지는 SNS 과몰입 경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이루었으나(r=-.151, p<.01),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타인인정추구와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했다(r=-.028).

표 3. 부의 지지를 중심으로 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N=384)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943**	1									
3	.939**	.872**	1								
4	.935**	.838**	.841**	1							
5	.861**	.728**	.743**	.748**	1						
6	-.125*	-.142**	-.105*	-.117*	-.086	1					
7	-.131*	-.120*	-.112*	-.115*	-.140**	.346**	1				
8	-.122*	-.113*	-.101*	-.119*	-.115*	.334**	.919**	1			
9	-.092	-.084	-.076	-.072	-.111*	.320**	.924**	.825**	1		
10	-.152**	-.145**	-.125*	-.143**	-.148**	.333**	.869**	.710**	.711**	1	
11	-.109*	-.091	-.106*	-.077	-.139**	.238**	.864**	.689**	.738**	.743**	1
평균	2.93	2.82	2.90	2.92	3.13	3.21	3.09	1.96	1.94	2.05	2.00
표준편차	.64	.70	.66	.73	.70	.60	.43	.58	.68	.61	.69
왜도	-.758	-.573	-.735	-.606	-.806	-.083	.190	.220	.080	.330	.497
첨도	.775	.479	.610	.209	.711	.309	-.698	-.834	-.738	-.486	-.560

1. 부의 지지 전체 2. 부의 정서적지지 3. 부의 평가적지지, 4. 부의 정보적지지 5. 부의 물질적지지 6. 타인인정추구 7. SNS 과몰입 경향성 전체 8.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9. 몰입 및 내성 10. 부정정서의 회피 11.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표 4. 모의 지지를 중심으로 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N=384)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950**	1									
3	.943**	.870**	1								
4	.930**	.830**	.866**	1							
5	.868**	.800**	.756**	.706**	1						
6	-.028	-.011	-.068	-.032	.005	1					
7	-.151**	-.128*	-.163**	-.145**	-.131*	.346**	1				
8	-.101*	-.086	-.104*	-.107*	-.079	.334**	.919**	1			
9	-.137**	-.118*	-.141**	-.131*	-.125*	.320**	.924**	.825**	1		
10	-.158**	-.129**	-.183**	-.150**	-.131**	.333**	.869**	.710**	.711**	1	
11	-.162**	-.141**	-.176**	-.143**	-.151**	.238**	.864**	.689**	.738**	.743**	1
평균	3.21	3.25	3.16	3.11	3.36	3.09	1.96	1.94	2.05	2.00	1.80
표준편차	.60	.63	.65	.68	.65	.43	.58	.68	.61	.69	.62
왜도	-.878	-.812	-.735	-.691	-1.086	-.083	.190	.220	.080	.330	.497
첨도	1.221	.802	.592	.525	1.447	.309	-.698	-.834	-.738	-.486	-.560

1. 모의 지지 전체 2. 모의 정서적지지 3. 모의 평가적지지, 4. 모의 정보적지지 5. 모의 물질적지지 6. 타인인정추구 7. SNS 과몰입 경향성 전체 8.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9. 몰입 및 내성 10. 부정정서의 회피 11.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www.dbpia.co.kr

2. 측정모형 검증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지지, 모의 지지와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의 매개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을 통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인인정추구척도는 하위요인 없이 단일 차원으로 가정해 사용하였기에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해 χ^2 및 df, CFI, TLI, NFI, RMSEA, SRMR의 적합도를 고려였다. 또한 그 결과 부의 지지, SNS 과몰입 경향성, 타인인정추구의 모형 적합도는 χ^2=100.713, df=41, CFI=.980, TLI=.973, NFI=.964, RMSEA=.062, SRMR=.033으로 나타났다. 모의 지지, SNS 과몰입 경향성, 타인인정추구의 모형 적합도는 χ^2=105.767, df=41, CFI=.979, TLI=.972, NFI=.966, RMSEA=.064, SRMR=.032로 두 모형 모두 매우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384)

	χ^2	df	CFI	TLI	NFI	RMSEA	SRMR
부의 지지	100.713***	41	.980	.973	.964	.062	.033
모의 지지	105.767***	41	.979	.972	.966	.064	.032

$^{*}p$ < .05, $^{**}p$ < .01, $^{***}p$ <. 001

3.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구조방정식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부의 지지, SNS 과몰입 경향성, 타인인정추구의 모형 적합도는 χ^2=119.514, df=49, CFI=.977, TLI=.969, NFI=.961, RMSEA=.061, SRMR=.033으로 나타났다. 모의 지지, SNS 과몰입 경향성, 타인인정추구의 모형 적합도는 χ^2=131.024, df=49, CFI=.973, TLI=.964, NFI=.959, RMSEA=.066, SRMR=.033으로 두 모형 모두 매우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의 매개모형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 지지는 타인인정추구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122, p<.05), 타인인정추구는 SNS 과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89, p<.001). 하지만 부의 지지가 SNS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간접효과만 유의하여 부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를 완전매개 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모의 지지는 SNS 과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나(β=-.141, p<.01)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지 못하기에 SNS 과몰입 경향성의 경로가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매개모형이 검증된 부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6. 구조방정식 적합도 지수 (*N*=384)

	χ^2	df	CFI	TLI	NFI	RMSEA	SRMR
부의 지지	119.514***	49	.977	.969	.961	.061	.033
모의 지지	131.024***	49	.973	.964	.959	.066	.033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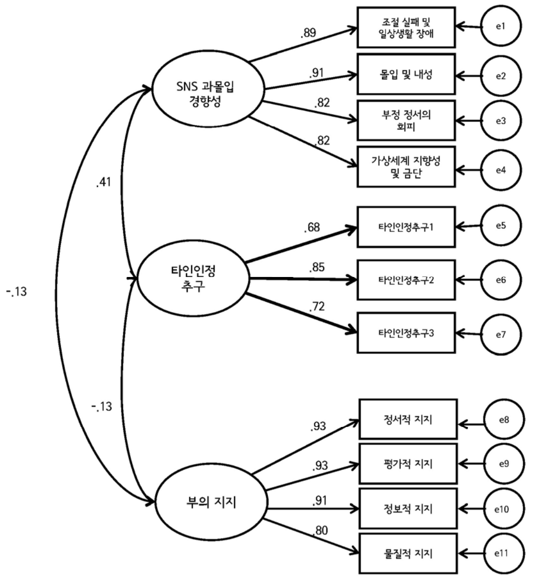

그림 2. 부의 지지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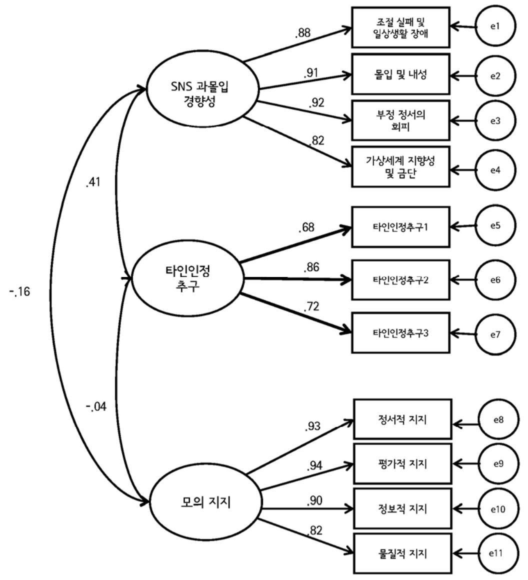

그림 3. 모의 지지 확인적 요인분석

www.db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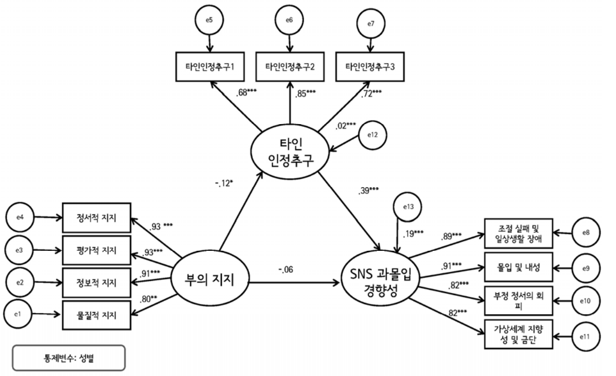

그림 4. 부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구조모형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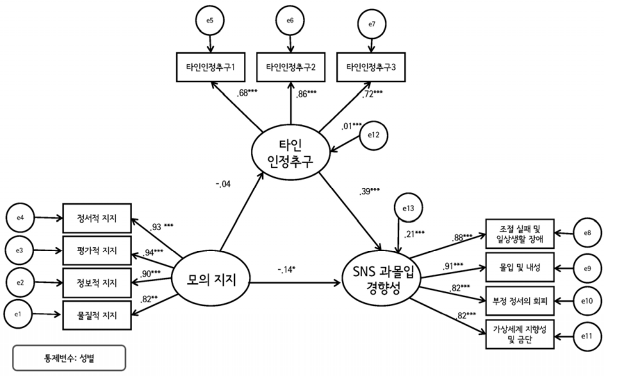

그림 5. 모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구조모형검증

표 7.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지지, 모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구조경로	Estimate B	Estimate β	S.E	C.R	p
부의 지지	부의 지지 → 타인인정추구	-.066	-.122	.032	-2.09	.036
	타인인정추구 → SNS과몰입경향성	.770	.389	.118	6.503	.001
	부의 지지 → SNS과몰입경향성	-.070	-.064	.055	-.1.28	.208
모의 지지	모의 지지 → 타인인정추구	-.022	-.039	.033	-.678	.498
	타인인정추구 → SNS과몰입경향성	.776	.392	.117	6.612	.001
	모의 지지 → SNS과몰입경향성	-.160	-.141	.057	-2.811	.005

$^{*}p < .05$, $^{**}p < .01$, $^{***}p < .001$

4.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경로가 확인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지지가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500개의 경험적 표본에서 얻어진 모의 지지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못하였고, 부의 지지 매개효과는(-.130, p<.05) 신뢰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표 8. 부의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부의 지지→ 타인인정추구→ SNS과몰입경향성	-.078	-.052	-.130	-.233 ~ -.006
모의 지지→ 타인인정추구→ SNS과몰입경향성	-.145	-.017	-.162	-.068 ~ .028

$^{*}p < .05$, $^{**}p < .01$,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SNS를 사용하는 전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의 지지, 모의 지지가 각각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가 각각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지지가 타인인정추구를 경유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생적인 기제를 나타낸 것이다. 즉, 부의 지지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경로에서 타인인정추구가 영향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SNS 과몰입 경향성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인들 중 부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타인인정

www.dbpia.co.kr

추구가 높아져 결핍을 채우고자 SNS에 과잉 수준으로 몰두하는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밝혀진 타인인정추구의 완전매개효과는 부지지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타인인정추구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민규영, 신민섭, 송현주, 2013; 최은실, 2003).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부의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여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립하는 것을 실패하여 부족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결핍을 채우고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추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때 즉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SNS에 몰입하게 되며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지지와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 모의 지지는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타인인정추구를 매개 하지는 못하였다.

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진 이와 같은 결과는 모의 지지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여대생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권진현, 2013; 이신애, 방윤이, 임윤미, 민혜영, 박효정, 2018)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며,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가졌을 때 아동의 스마트폰과 컴퓨터게임 중독의 위험도는 높은 것으로 밝혀져(이주연, 2014; 홍찬숙, 2006),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적절한 수준의 지지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모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지 못하여 매개효과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의 지지가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타인인정추구가 아닌 다른 변수가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부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만, 모의 지지는 타인인정추구와는 상관없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계경제를 책임져왔으며 자녀의 양육은 모가 주양육자로서 감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선행연구에서 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밝혀지며 부의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성장했던 아동·청소년기에는 가정 내에서 모의 양육 중심이 되었던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의 양육 참여와 의사소통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타인인정추구와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특별히 부의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타인인정추구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들은 부의 지지에 대한 결핍을 느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몰입하는 타인인정추구가 높아져, 이로 인해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SNS를 통한 관계 확장 및 관계 유지라는 긍정적인 사용목적이 퇴색되고,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대학생 시기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자녀의 타인인정 추구와 SNS 과몰입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부의 적극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지지와 정서적 교류를 해왔기에 자녀 입장에서는 특별함을 느낄 수 없어 타인인정추구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매개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모 지지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대학생의 SNS 과몰입 경향성 감소를 위해서는 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타인인정추구를 감소시켜 SNS 과몰입 경향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존 SNS 과몰입 경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에만 주목하여 환경적 변인이 되는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이나 가족의영향을 간과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모의 지지에 대하여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적 변인인 부의 지지와 모의 지지, 개인 내적 변인인 타인인정추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과몰입 경향성 대상자로 연구대상자를 한정하지 못하고 일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응답자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SNS 과몰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SNS 사용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 문화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후속연구에서는 SNS와 관련된 가족 변인의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SNS 과몰입 경향

www.dbpia.co.kr

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과 개인내적 요인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인인정추구 감소를 위해 부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SNS과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의 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는 SNS 과몰입 경향성의 경로를 탐색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SNS 과몰입 경향성 문제와 타인인정추구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적 도움과 예방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14*(4), 969-990.

고미정(2018). **아버지의 정서적지지 집단과 부정적 평가 집단 간 유아의 자기결정성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보숙, 박정환(2018). The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ness of Ego Resiliency between University School Students' Parental Attachmant and SNS Addiction Tendency: Surveying residing in Jeju.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5), 236-243.

공정현, 김세루, 오은진(2015).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SNS 중독경향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인문사회21, 6*(4), 99-115.

권여은, 이지민(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2), 17-29.

권진현(201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모, 김현철(2013).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SNS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477-495.

김나래, 이기학(2015). 대학생의 인정욕구, 사회적지지, 사회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4), 245-264.

김남희(2016). **결혼불만족과 외로움,SNS중독의 관계 : 성별과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희, 박영준, 장재원(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매개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67-89.

김민정(2011). **스마트 폰에서의 SNS 사용이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박용매, 허창구(2016).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483-502.

김상문(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역량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희(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 서경현(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화(201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추이 및 이용행태분석. *KISDI STAT Report,* 16(7).

김윤화(2018).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추이 및 이용행태분석. *KISDI STAT Report,* 18-11.

김양희, 김진희, 박정윤(2001).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4,* 17-32.

김연희(2013). **자기애 취약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추구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애(1994).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학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운, 곽태은(2016). 전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055-1075.

김지현(2015). **20대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자의 가족체계기능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2014). **대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위험 관련 요인.** 대구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아, 장석진(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653-672.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

www.dbpia.co.kr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문지현, 신나나(2017).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8*(6), 17-33.

민규영, 신민섭, 송현주(2013).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5*(1), 1-16.

박영림, 최해림(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부부갈등지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박용매, 문수백(2009). 청소년 비행행동 관련변인들간의 관계구조분석- 가족체계유형과 사회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16*(3), 143-162.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미(2011).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경란(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은혜(2016). **학령기 아동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검증.**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기선(2014). **20대의 SNS 중독경향성과 불안정 성인애착, 외로움, 인정욕구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희수, 안명희(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송기선(2014). **20대의 SNS 중독경향성과 불안정 성인애착, 외로움, 인정욕구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진숙, 이영관(2007). 대전지역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가족여가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여가 만족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2), 183-194.

송혜진(2011).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31-49.

심미영, 이온유, 김은희(2016). 대학생의 가족지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5*(2), 22-47.

안수빈, 이강아(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3), 51-67.

양옥경, 김연수(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 과학연구논총, 11,* 115-147.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8,* 149-178.

오경임(2016).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자기노출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윤경(2011).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희, 김현진(2014).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5*(4), 35-57.

원소희, 서경현(2016). 청소년의 자기중심성 및 인정욕구와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9), 255-274.

유나(2016). **관계적 공격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미숙(2015).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Ⅱ(KFSS-Ⅱ)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3-129.

유영진(2011).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진이(20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19-237.

유훈식(2010).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SNS의 인터랙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정(198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망 지각.**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자(2004).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계정, 정남운(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형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이상호(2013). SNS 사용자의 감성인식, 몰입이 구전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관리연구, 18*(2), 1-23.

이선화(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탄력성이 대인**

www.dbpia.co.kr

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애, 방윤이, 임윤미, 민혜영, 박효정(2018).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6), 188-196.

이인수, 이무석(2017). **누구의 인정도 아닌: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 고양: 위즈덤하우스.

이종범, 정철영(2005). 초등학생의 직업흥미와 직업포부 및 진로발달간의 관계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135-152.

이주연(2001). **일반청소년과 통신 중독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지각과 자아 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연(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61-79.

이연미, 이선정, 신효식(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3),

이영미(2016).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2), 561-568.

이정숙(2010).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 경험의 매개역할.** 가톨릭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향희(2017). **가족지지와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관계: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수빈(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애경, 이지연(2011).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서 타인에 의한 타당화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881-896.

장동주(2010). **부모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하연, 조용래(201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신념과 정서적 고통감내력이 사회적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2*(3), 299-313.

정유진, 배국진(2007).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 *Emerging Issue Report,* 1-59.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정소영, 김종남(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정수인(2014). **중학생의 외로움과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태(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다현(2014). **SNS 중독경향성과 병리적 자기애, 정서표현성, 친구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민지(2016).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대인관계 성향의 매개효과.**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실(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수경(2014). 대학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339-368.

한국미디어패널(2015). 2015년 미디어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KISDI STAT Report, 15*(17).

한국미디어패널(201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내용. *KISDI STAT Report, 19*(2).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저자.

홍구표(2016).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찬숙(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대인불안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BN(2017.10.5.).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자”…디지털 디톡스가 뜬다. http://mbn.mk.co.kn00003&news_seq_no=3354700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 에서 인출.

Barrera, M.(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arental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CA: Sage.

Bernard, M. W. (1998). Validation of the general attitude and beliefs scal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6,* 183-196.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New York: Basic Books.

Buffardi L., Campbell W.(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303-1314.

Burns, A. B., Brown, J. S., Ashby Plant, E., Sachs-Ericsson, N., & Joiner, T. E. (2006). On the specific depressotypic nature of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www.dbpia.co.k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1), 135-145.

Catalina L. Toma, Jeffey T. Hancock (2013) Self-affirmation underlies facebook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3), 321-331.

David, D., Schnur, J., & Belloiu, A. (2002). Another search for the "hot" cognitions: Appraisal, irrational beliefs, attributions, and their relation to emot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9,* 93-131.

Ellis, A. (1994).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2nd ed.). Secaucus, NJ: Birch Lane Press.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90-100.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d instructure modeling: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 q 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Martin, H. J. (1984). A revised measure of approval motiv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5), 508-519.

Kohut, H. (1971). *Analysis of the self : Systematic approach to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Madison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 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Panek, E. T., Nardis, Y., & Konrath, S. (2013). Mirror or megaphone?: How relationships between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site use differ on facebook and twitt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5), 2004-2012.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Sheldon, P. (2008) Student favorite: facebook and motives for its us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3*(2), 39-53.

Toma CL, Hancock JT(2013) Self-affirmation underlies facebook use. *Pers Soc Psychol Bull 39,* 321-331.

☐ Received: January 03. 2019
☐ Revised: March 04. 2019
☐ Accepted: March 07. 2019

www.dbpia.co.kr